

한국 기독교학교 교육의 현황과 그 대안

정희영* · 정희정**

논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기독교학교교육의 현재 교육적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기독교학교교육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독교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학교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고 기독교학교 교육의 현황 파악을 위해 예배, 기독교교육과정, 기독교부모교육, 기독교교사교육, 교재개발 등에 관련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현재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에 가입한 학교와 기독교교육철학에 의해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기독교정신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기독교학교를 합한 10개교의 기독교학교 교사들이다. 자료처리는 SPSS 1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그리고 다중응답분석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결과는 첫째, 기독교학교들이 예배를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둘째,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이 충분한 연구와 분석 없이 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셋째,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이 부모의 교육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넷째, 체계적인 교사재교육의 필요성과 각 교과목의 교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핵심 주제어: 예배, 기독교교육과정, 기독교부모교육, 기독교교사교육, 교재개발

* 충신대 교수, 제1 저자

** 충신대 박사과정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조선일보(2005)에서 “붕어빵 교육가라...폭발하는 대안학교”라는 제목으로 획일화된 교육으로 상징되는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교육을 찾는 사람들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기사화하였다. 이는 이전의 대안학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학생을 위한 기관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대안교육기관은 2000년 이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국적으로 100여 곳(인가, 비인가 포함)으로 늘고 있다. 늘어나는 대안학교의 수는 곧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는 자살하는 아이들 수의 증가, 폭력과 포르노에 노출된 아이들, 늘어나는 사교육비, 아동 및 청소년의 두뇌유출(한미라, 2005) 외에도 원조교제, 집단 성폭행, 대규모 집단 시험부정행위(오춘희, 2005)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비단 일반 대안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000년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교육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교육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독교 대안교육 협의회를 만들었으며 올바른 기독교교육을 위해 2000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기독교

대안교육, 도전과 도약(2002) 등의 기독교교육에 관한 여러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기대협(기독교 대안학교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학회에서도 있었다. 기독교정보학회에서 ‘디지털시대의 기독교학교 및 홈스쿨링 교육’(2005)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때,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기초한 교육함의 의미’,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교육적 과제: 기독교학교와 홈스쿨링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기독교 대안학교 심포지엄에서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 대안학교의 정체성’(국민일보, 2005, 7)이라는 주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 대한 현재의 활동은 주로 이론이나 왜 기독교교육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초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된 이론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육적 준비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교사들의 요구와 교육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교육과정의 개발은 잘 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한미라(2005)는 그의 논문 ‘공교육의 위기와 기독교교육학의 역할 재정립’에서 실험적이면서도 현장중심적인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기독교교육을 위한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론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현재 기독교 학교교육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조사함으로써 기독교 학교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어서 기독교 학교교육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기독교학교 교육의 현황파악을 위해 예배, 기독교교육과정, 기독교 부모교육, 기독교 교사교육 등에 관련된 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하고, 현황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독교 교육의 기초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신념의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의 현상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신념의 틀로 교육을 행하는 것이다.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창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창조 기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시는 창조의 행위 즉 '만들다' 라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창조계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써 창조의 산물인 '우주'를 뜻하며, 이 우주는 헬라이어 코스모스(kosmos)에서 유래된 말로서 '장식', '아름다운 배열'을 의미하는 창조 질서를 말한다. 무에서 유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한번에 그리고 언제나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중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등 매개자 없이 직접 법을 부과하시는 자연법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과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하게 하시는 개별법을 통하여 태초부터 있었던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신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에서 행사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하도록 요구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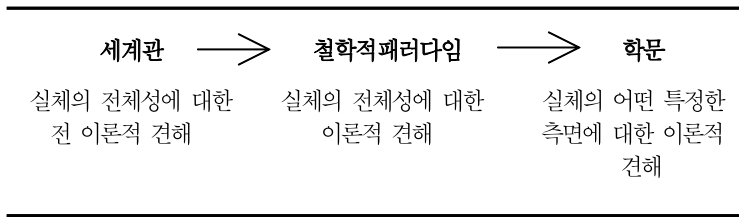
창조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인간의 범죄는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게 된다. 첫 사람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게 되고 이 언약의 파괴는 아담 한 사람

에게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의 인격, 그리고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인간사의 여러 영역과 창조계의 전 영역에 미치고 있다.

이제 타락으로 인한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회복을 필요로 한다. 이 회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고후 5:17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으로 인한 범죄는 전 인류와 우주를 타락시킨 반면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은 그리스도 안의 인류를 회복시킨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를 통해 타락된 우주는 회복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창조계의 모든 영역에서 타락으로 인해 어두워진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정희영, 2000).

이러한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인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리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이 정신적인 것에만 영향을 미치고 비정신적인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이원론적 사고이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교육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도 구속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나이트(Knight, 1993)은 교육활동이 철학적 견해와 명백히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즉 교육적 활동들이 철학적 견해 위에 세워진다는 뜻으로, 기본적인 삶과 궁극적 의미에 관한 질문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교육활동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월쉬와 미들턴(Walsh & Middleton, 1996)은 하나의 세계관 혹은 모든 삶에 대한 시각이 학문 활동에서 최초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그 학자가 이론적인 철학적 틀을 구성할 때라고 하면서 세계관, 철학 학문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 세계관, 철학 학문과의 관계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철학에서 도출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철학은 기독교 철학의 영역 안에 교육의 요소를 가미하여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내는 일이며, 이는 기독교 철학의 기본 범주인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으로 출발한다.

기독교 철학의 첫 번째 범주인 형이상학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 어떠한 기초를 제공하는가? 형이상학은 실체의 본질을 다루는 철학의 한 영역이다. “궁극적으로 실재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형이상학을 연구할 때 최초로 던져지는 질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반드시 실재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 위에 세워져야 한다. 기독교는 초자연적 종교로서 모든 형태의 자연주의와 인간 교육 경험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치해 두지 않는 각종 유신론적 사상 체계,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신의 지혜와 선함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인본주의에 철저히 반대한다. 명목상만이 아닌 실제적인 기독교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형이상학적 입장 위에 신중히 기독교 교육이 수립되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실재란 그러므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

님의 존재이다. 기독교 교육제도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생겨났다.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것에도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중심적 실재로 인정하는 교육제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적 형이상학은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형성한다.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제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목적과 관계되어 고려된다. 즉 기독교 형이상학은 기독교 교육의 존재, 교육과정,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고 결정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본질과 잠재력을 설명해 주며 가장 이상적인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제안해주며 교육방법을 선택하는 평가기준을 제공해준다.

기독교 철학의 두 번째 범주는 인식론과 관련된 논의이다. 인식론은 지식의 본질, 원천, 확실성을 연구하는 철학의 영역으로, “무엇이 진리인가?”와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제를 가진다. 기독교 형이상학과 함께 기독교인의 진리에 대한 견해는 기독교교육의 바탕을 형성한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으뜸가는 지식의 원천이며 가장 요건적인 인식론적 권위이다. 그 외의 모든 지식의 원천들은 성경에 비추어 검증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과 관련하여 계시를 권위적인 일차적 근원으로 인정함은 성경을 기독교 교육의 중심에다 위치시키며 모든 주제들을 평가하게 하는 지식의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교육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철학의 세 번째 범주인 가치론은 기독교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기초를 제공하는가? 가치론이란 “무엇이 가치를 지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철학의 영역으로, 가치의 문제는 사람이나 사회가 선택한 것으로 또는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관념들을 다룬다. 가치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의 원리들은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관한 기독교 견해 위에 직접적으로 수립된다. 바꾸어 말하면, 실재와 진리에 대한 견해가 가치 개념을 낳게 한다는 말이다. 기독교 가치론의 원리들은 궁극적 의미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성경으로부터 연유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의 절대적 기초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이상 가는 기준이나 법은 없으며, 하나님의 주된 속성은 사랑과 공의이다. 기독교 윤리가 기독교교육을 위하여 제시해주는 교훈과 암시는 많다. 예를 들어 교육방법은 윤리적인 것들에 대한 고려를 요구한다. 교사나 부모가 율법주의와 반명분주의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앙은 학급에서의 훈련이 권위주의적 통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할지, 자유방임적이어야 할지, 아니면 도덕적 원리라는 상황 속에서 개인이 가지는 책임성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윤리의 타자 중심성과 봉사 지향성은 기독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 학생들 간의 바람직한 형태의 관계, 교사들간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간의 관계의 형태와 같은 교육적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암시를 던져준다(Knight, 1993).

이와 같이 기독교 교육철학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그 바탕이 되어주는 대전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교육과정을 이끌어 교육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모티브가 된다. 즉,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한 기독교교육의 이론적 기초는 기독교 교육철학을 통하여 그 근거가 형성되었으며, 이제 그 근거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실제적 학문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독교의 교육목적은 단순히 교육적 차원이 아닌 인간존재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그 인간을 통한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결국 기독교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기독교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결국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 교육철학의 테두리 안에서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그리고 가치론적 질문들에 대한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 따른 대답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기독교 인생관, 기독교 세계관

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이해해야 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목적지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사는 학생들을 목적 학습 즉 의미(meaning) 학습으로 인도해야만 한다(Wilhoit, 1993).

그러나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목적이 아닌 세상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롬 1:23은 이에 대해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는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것을 추구하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기독교 학교 자체의 목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교육에 대한 이상적인 목적과 실제적인 목적이 자주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의 교육목적에 있어서 늘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독교학교의 교육목적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 기독교 교육의 내용

기독교 교육에서 예배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활동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인간은 두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 깨닫는 것이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미래의 일들을 결심하는 일련의 변화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학습 그 자체이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를 교육활동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많지는 않다. 예배를

교육적 행위가 아닌 단순한 신앙적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학교에서조차 예배는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있어서 예배는 신앙적 행위 그 이상을 포함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배의 각각의 요소에는 교육의 필요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을 때에만 기쁨의 축제가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계속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예배가 교육과정의 집약적 표징임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이영호, 1996).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예배가 포함되어 체계적으로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기독교 교육은 교육과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독교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육과정은 기독교 세계관을 드러내야 한다.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이 일반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육과정과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 기저의 철학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학교에서의 각 과목은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학문들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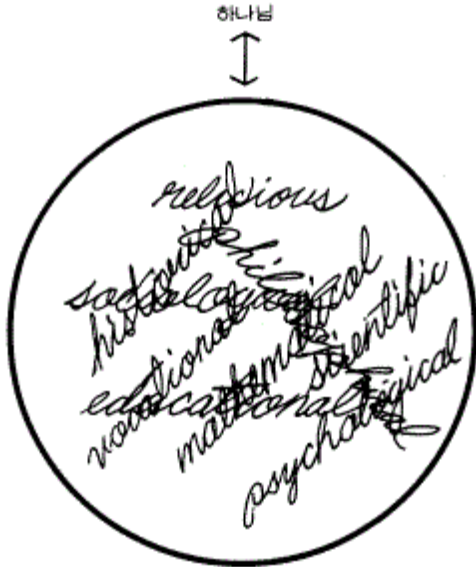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동의 결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피조물이나 피조계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섬김으로 인도해주는 교육과정을 기독교학교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며 이러한 과제 자체가 종교적인 성격을 띠는 사실에 대해 기독교 교육가들이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Edlin, 2004). 또한 기독교 교육가들은 기독교교육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성경의 명확하고도 함축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간주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은 자체적 재충전을 할 수 있는

데, 복음주의 기독교교육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성경의 권위에 근거를 둔 말씀에 입각하고 있다(Hayes, 1994).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과정의 골격을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인 기초를 확립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조직한다면 결국은 기독교 교육목적이 의미하는 바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 교육과정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수직적 통합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합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평적 통합은 각 교과목끼리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연합하고 통합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임태규, 1999). 드 중(De Jong, 1985)도 지식의 통일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식은 본질상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지식은 본래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며, 지식을 나누는 것은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며 인간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는 지식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을 <그림 2>로 나타내었다.

또한 기독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영역중의 하나가 바로 부모들이다. 학교 교육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곳이 학교이며, 부모는 단지 협조하고 참여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쉬우나, 학교 교육은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자녀양육의 확장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부모들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다. 구약시대의 가정은 자녀들의 교육의 중요한 장이었고,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일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앙과 교육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며,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권위도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신앙교백이 된 쉘마(신 6:4-9)는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에 대한 확언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자녀에게 가르쳤다.



<그림 2> 지식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

종교개혁시대에도 부모들의 교육적 책임은 계속 강조되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책임과 역할에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루터였는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라는 성경말씀을 통해서 부모들은 항상 제일 우선적으로 교육자로 고려되는 자들이라고 했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관심사가 되는 것은 다른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부모들 자신이 먼저 교육되고 훈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 또한 자녀들이 계약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부모의 신앙고백을 통한 유아세례로만 될 수 있다고 하며,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리문답과 기독교 생활양식을 가르치도록 요구하였다.

근세에 와서는 코메니우스가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그 이후 부쉬넬(Bushnell)이 [Christian Nurture]에서 부모의 정신과 성격이 자녀의 생

활과 성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장소로서의 가정이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장이 됨을 부각시켰다. 교육은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부모는 교사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아동을 양육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로서 부모는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어야 하며 신앙과 사랑이 삶 가운데에서 인격적 연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릴 영적 능력 즉 사랑의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설은주, 1994).

이러한 영향 아래 기독교 학교들은 In the Place of Parents라는 가치로 학교의 역할은 철저히 부모에게 부여된 교육적 권위에 종속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였다. 즉 기독교적인 교육은 교육의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란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김요셉, 2005). 학교는 단지 부모로부터 아동들을 위탁받아 교육시키는 기관이어야 한다. 자녀에 대한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학부모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기독교 학교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자녀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배운 것을 학교 교육을 통해 강화하고 심화하여야 하는데 이는 오직 기독교 학교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를 유념해야만 한다(Edlin, 2004).

결론적으로 교육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학습과 탐구를 하는 곳, 그리고 그 결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 모두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교육을 위해서는 이 세 곳의 교육이 하나로 조화를 이룬 일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오춘희, 2005). 그러나 현대사회는 부모들이 이러한 교육적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학교가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독교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와 교사가 자녀교육

의 동반자로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환경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교사는 그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단순한 교사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이다. 기독교교육이 학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은 구속 사역이며,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속적 관계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사역자이며 목회자인 것이다(Knight, 1993).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의 진정한 정체성 회복은 교사의 학교관과 교육관이 얼마나 성경적이며 얼마나 신본주의적인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교사는 실질적으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보루이다. 아이들이 체험하는 기독교 학교는 교사의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육 모델링에서 비롯된다. 기독교 학교는 진정한 의미로서 기독교 교사가 세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진정한 기독교 교사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학문적으로는 성경의 진리와 학문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기독교적인 교수 학습 형태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사들이어야 한다(김요셉, 2005).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 체계에 따라 가르치기 마련이다. 학문의 내용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신념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조명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사가 자신의 기독교 교육철학에 입각한 교육신념을 먼저 확립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교육에 있어서는 일반 교육철학에 입각한 교육신념에 따라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된 바가 없다. 현실적으로 기독교인 교사들이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교사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들을 성숙시킬 수 있는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Peterson(1994)은 기독교인 교사들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중요

한 사항들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교사의 개인적인 신앙점검이다. 진실한 교사는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며, 자기의 그러한 신앙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성숙한 일상생활이다. 기독교인 교사들은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더 굳게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교사로서의 행동과 생활태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긍정적인 태도이다. 인간들의 심성에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숨어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아와 끊임없이 대결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실한 교사들만이 거침없이 공격해오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으며 모든 사물과 인간들을 향해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교사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지식이다. 일반학문을 가르치는 기독교인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개념을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전공분야에 연결시켜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개념을 일반학문 속에 불순하게 뒤섞어 놓고 가르친다면, 그 강의의 수준과 주제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 감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를 깨닫고 연구해야 한다. 다섯째, 가르치는 기술이다. 교사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것이며’ 또한 가르친다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개발되어야 할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인 교사는 가르치는 방법과 기술 분야에서 자기의 능력과 최선을 다하

여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현 세대에 대한 경계이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기독교인 교사들은 그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을 향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며,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항상 악에 대하여 깨어있고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한다. 일곱째, 정신적 신체적인 준비이다. 기독교인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육체를 소중히 돌봐야만 한다. 너무 지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데 쓰라고 주신 자기의 몸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청지기 사명의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계획된 스케줄과 활동영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에 가입한 회원학교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학교라고 칭하는 미션스쿨이 아닌 기독교 교육철학에 의해 교육의 목적을 설정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7개의 기독교학교와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에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이상과 같은 정신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3개의 학교를 합한 10곳을 선정하여 그 학교의 교사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학교는 독수리 기독교중·고등학교, 두레자연고등학교, 지구촌고등학교, 꿈의 학교, 서울 크리스찬중·고등학교, 로고스

기독교학교, 한동국제학교, 광주동명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풀무고등학교 등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예배나 성경공부를 첨가한 형태의 교육과정이나 설립 이념만 기독교적인 일반적인 미션스쿨의 개념과는 구별이 되는 학교들을 말한다. 각 학교마다 연구의 대상을 10명으로 제한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 10개의 학교 가운데 교사가 가장 많은 학교에 33명의 교사가 재직 중이었으며 가장 교사의 수가 적은 학교는 10명의 교사가 재직 중이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연령	유효 26-30세	9	20.9	20.9
	31-35세	8	18.6	39.5
	36-40세	13	30.2	69.8
	41세이상	13	30.2	100.0
	합계	43	100.0	
신앙경력	유효 3-5년	1	2.3	2.4
	5-10년	6	14.0	16.7
	10년이상	23	53.5	71.4
	모태신앙	12	27.9	100.0
	합계	42	97.7	
	결측 시스템결측값	1	2.3	
	합계	43	100.0	
출신대학	유효 일반대일반학과	40	93.0	93.0
	신학대교육과	2	4.7	97.7
	기타	1	2.3	100.0
	합계	43	100.0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최종학력	유효 4년제 대학졸업	23	53.5	53.5
	대학원졸업	13	30.2	83.7
	대학원졸업이상	6	14.0	97.7
	기타	1	2.3	100.0
	합계	43	100.0	
교회교단	유효 장로회합동	13	30.2	32.5
	장로회통합	6	14.0	47.5
	감리교	1	2.3	50.0
	침례교	6	14.0	65.0
	성결교	2	4.7	70.0
	기타	12	27.9	100.0
	합계	40	93.0	
	결측 시스템 결측값 합계	3 43	7.0 100.0	
교회직분	유효 평신도	25	58.1	61.0
	집사	16	37.2	100.0
	합계	41	95.3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7	
	합계	43	100.0	

교사 및 학교의 일반적인 배경을 살펴본 결과, 교사의 연령은 36세 이상이 26명(60.4%)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신앙경력은 모태신앙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이 35명(81.4%)이며, 대부분이 일반대의 일반학과를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93%).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이 23명(53.5%), 대학원 졸업 이상이 19명(44.2%)이었다. 교사들이 현재 소속된 교회의 교단을 살펴본 결과 장로회 합동이 13명(30.2%), 장로회 통합이 6명(14.0%), 감리교 1명

(2.3%), 침례교 6명(14.0%), 성결교 2명(4.7%), 기타 12명(27.9%)였다. 기타는 대부분 초교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직분은 25명(58.1%)의 교사가 평신도이며 16명(37.2%)의 교사가 집사로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및 자료처리

본 연구의 도구는 한국 기독교학교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47문항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 후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예비검사를 대신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교사 및 학교의 일반적인 배경에 대한 질문 12문항, 교육목적에 대한 질문 2문항, 예배에 대한 질문 7문항,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 7문항,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에 대한 질문 8문항, 교사재교육에 대한 질문 6문항, 전반적인 학교에 대한 질문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10개의 기독교학교에 우편으로 총 100부를 배부하였고, 이 가운데 회수된 43부만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그리고 다중응답분석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기독교 세계관 및 소명의식과 만족도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13명(30.2%)의 교사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했고, 22명(51.2%)의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8명(18.6%)의 교사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표 2> 교사의 기독교 세계관 및 소명의식과 만족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기독교 세계관	유효 보통이다	13	30.2	30.2
	그렇다	22	51.2	81.4
	매우 그렇다	8	18.6	100.0
	합계	43	100.0	
소명의식	유효 보통이다	5	11.6	11.6
	그렇다	21	48.8	60.5
	매우 그렇다	17	39.5	100.0
	합계	43	100.0	
만족도	유효 아니다	1	2.3	2.3
	보통이다	6	14.0	16.3
	그렇다	21	48.8	65.1
	매우 그렇다	15	34.9	100.0
	합계	43	100.0	

이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신들의 기독교 세계관 확립 정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명의식과 관련해서는 38명(88.3%)의 교사들이 소명의식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만족도에서도 36명(83.7%)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80%가 넘는 교사들이 기독교학교의 교사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목적의 적절성 및 교육과정에서의 반영정도

교육목적이 기독교학교의 교육목적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38명(88.3%)의 교사들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목적이 교육과정에 열

마나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31명(72.1%)의 교사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독교학교의 교육목적은 그 존재근거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하며, 확실한 기독교 교육철학위에 확립되어야 한다.

<표 3> 교육목적의 적절성 및 교육과정에서의 반영정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적절성	유효	4	9.3	9.5
	보통이다	21	48.8	59.5
	그렇다	17	39.5	100.0
	매우 그렇다	42	97.7	
	합계	1	2.3	
	결측	43	100.0	
반영정도	유효	1	2.3	2.3
	아니다	11	25.6	27.9
	보통이다	23	53.5	81.4
	그렇다	8	18.6	100.0
	매우 그렇다	43	100.0	
	합계			

3. 예배

(1) 예배의 횟수 및 시간

학교별로 예배의 횟수와 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예배는 일주일에 1번 드리는 경우가 6개교(60.0%)였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과 3번 드리는 경우는 각각 1개교였다. 예배시간은 7개교가 40-50분의 예배를 드렸고, 2개교가 30-40분 그리고 1개교가 20-30분의 예배를 드렸다. 이 결과는 미션스쿨의 예배횟수 및

예배시간과 비교해봄으로써 현재 기독교학교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다.

<표 3-1> 예배의 횟수 및 시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횟수 (학교별)	유효 1번	6	60.0	60.0
	2번	1	10.0	70.0
	3번	1	10.0	80.0
	기타	2	20.0	100.0
	합계	10	100.0	
시간 (학교별)	유효 20-30분	1	10.0	10.0
	30-40분	2	20.0	30.0
	40-50분	7	70.0	100.0
	합계	10	100.0	

(2)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횟수 및 시간

기독교학교 교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횟수와 시간을 살펴본 결과, 일주일 동안 드리는 예배의 바람직한 횟수는 1번으로 20명(46.5%)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11명(25.6%)의 교사가 2번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예배의 시간으로는 32명(74.4%)의 교사가 40-50분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2>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횟수 및 시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횟수	유효 1번	20	46.5	46.5
	2번	11	25.6	72.1

	3번	5	11.6	83.7
	4번	1	2.3	86.0
	기타	6	14.0	100.0
	합계	43	100.0	
시간	유효 20-30분	2	4.7	47
	30-40분	6	14.0	18.6
	40-50분	32	74.4	93.0
	기타	3	7.0	100.0
	합계	43	100.0	

(3) 설교담당과 설교본문의 선정

<표 3-3> 설교담당과 설교본문의 선정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설교담당	유효 교목	15	34.9	34.9
	선생님들	5	11.6	46.5
	기타	23	53.5	100.0
	합계	43	100.0	
설교본문	유효 설교자	38	88.4	88.4
	예배위원회	1	2.3	90.7
	교육과정	3	7.0	97.7
	기타	1	2.3	100.0
	합계	43	100.0	

예배의 설교를 누가 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기타로 모두 23명(53.5%)의 교사들이 응답하였다. 기타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외부강사,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목과 교사들이었다. 이외에 교목이 상주하여 예배를 전담하는 경우도 34.9%였다.

또한 설교본문은 대부분 설교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88.4%). 기독교교육에서 예배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활동이며 교육과정의 집약적 표징이지만, 실제 기독교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신앙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침묵상시간의 횟수

<표 3-4> 아침묵상시간의 횟수

	묵상횟수			전체
	일주일 1번	일주일 3번	매일	
묵상시간 (네)	1	1	28	30
(아니오)				13
합계				43

수업을 시작하기 전 묵상시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30명의 교사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그 횟수는 매일로 28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대체로 기독교학교에서는 매일 묵상시간이 있으나, 그 반대로 묵상시간이 없다고 대답한 교사도 13명이나 되었다.

4. 교육과정

(1) 교육과정과 기독교 세계관 및 대학입시 관련정도

기독교학교의 전반적인 교육과정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명(14.9%)의 교사들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22명(51.4%)의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

<표 4-1> 교육과정과 기독교 세계관 및 대학입시 관련정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기독교 세계관	유효 아니다	2	4.7	4.7
	보통이다	13	30.2	34.9
	그렇다	22	51.2	86.0
	매우 그렇다	6	14.0	100.0
	합계	43	100.0	
대학 입시	유효 매우 아니다	3	7.0	7.0
	아니다	8	18.6	25.6
	보통이다	11	25.6	51.2
	그렇다	17	39.5	90.7
	매우 그렇다	4	9.3	100.0
	합계	43	100.0	

학 입시와의 관련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포함하여 21명(48.8%)의 교사들이 응답했는데, 이는 기독교학교 또한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를 배제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 관련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진단할 필요가 있다.

(2) 성경과목시간 및 성경과 교과목의 통합 정도

<표 4-2> 성경과목시간 및 성경과 교과목의 통합 정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성경시간	유효 1시간	19	44.2	44.2
	2시간	20	46.5	90.7
	3시간	1	2.3	93.0
	5시간이상	3	7.0	100.0
	합계	43	100.0	

통합정도	유효	매우			
		아니다	1	23	23
		아니다	6	14.0	16.3
		보통이다	19	44.2	60.5
		그렇다	12	27.9	88.4
		매우	5	11.6	100.0
		그렇다	43	100.0	
	합계				

성경과목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지 묻는 질문에 19명(44.2%)의 교사들이 일주일에 1번이라고 응답했고, 20명(46.5%)의 교사들이 2번이라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학교의 성경과목은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예배의 횟수와 마찬가지로 다른 미션스쿨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기독교학교의 모습을 좀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각 교과목과 성경의 통합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포함하여 17명(39.5%)의 교사들이 응답했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들은 19명(44.2%)이었다.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수직적 통합은 모든 교과목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합시키는 것이고 수평적 통합은 각 교과목끼리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각각의 교사의 능력과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실제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3) 사용교재 및 교재개발의 필요성

현재 각 과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질문에서 34명(79.1%)의 교사들이 일반교재를 사용하되 교사의 재량에 따라 기독교적인 조명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4명(9.3%)의 교사들이 일반교재와 기독교적 관점을 통합한 교재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외국 기독교교육 관련 교재를 사용하는

<표 4-3> 사용교재 및 교재개발의 필요성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사용교재	유효 일반교재	34	79.1	79.1
	통합교재	4	9.3	88.4
	외국교재	3	7.0	95.3
	개발교재	1	2.3	97.7
	기타	1	2.3	100.0
	합계	43	100.0	
교재개발 필요성	유효 아니다	1	2.3	2.3
	보통이다	5	11.6	14.0
	그렇다	19	44.2	58.1
	매우 그렇다	18	41.9	100.0
	합계	43	100.0	

교사는 3명(7.0%)이었다. 반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교사는 1명(2.3%)에 그쳤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는데, 무엇보다 일반교재를 사용하면서 기독교적인 조명을 하는 것이 어떤 수준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의 질문인 교육과정과 기독교 세계관의 관련정도, 성경과 각 교과목의 통합정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재개발의 필요성은 많은 교사들(86.1%)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교재는 기독교학교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기독교 교육학자와 교과전문가, 그리고 기독교 교사의 협력 아래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5.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

(1) 부모의 참여정도 및 참여형태

<표 5-1> 부모의 참여정도 및 참여형태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참여정도	유효			
	매우 아니다	3	7.0	7.0
	아니다	5	11.6	18.6
	보통이다	21	48.8	67.4
	그렇다	11	25.6	93.0
	매우 그렇다	3	7.0	100.0
	합계	43	100.0	
참여형태	유효			
	간담회	37	37.4	
	자원봉사	12	12.1	
	후원금 지원	18	18.2	
	운영위원회	28	28.3	
	기타	4	4.0	
	합계	99	100.0	

기독교학교의 운영에 부모의 참여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3명(7.0%)의 교사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11명(25.6%)의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21명(48.8%)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실제 기독교학교의 부모참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형태를 묻는 복수응답질문에서 37명(37.4%)의 교사들이 ‘학부모 간담회’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은 28명(28.3%)의 교사들이 ‘운영위원회’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 순서로는 ‘후원금 지원’(18.2%), ‘자원봉사’(12.1%), ‘기타’(4.0%)였다.

(2) 부모교육의 형태 및 시행횟수

<표 5-2> 부모교육의 형태 및 시행횟수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부모교육 형태	유효 면담 및 상담	36	61.0	
	직접수업	2	3.4	
	특기교육	2	3.4	
	세미나	13	22.0	
	기타	6	10.2	
	합계	59	100.0	
시행횟수	유효 1번	1	2.3	2.3
	2번	17	39.5	41.9
	3번	5	11.6	53.5
	4번	4	9.3	62.8
	기타	16	37.2	100.0
	합계	43	100.0	

부모참여와 달리 부모교육의 형태를 묻는 복수응답질문에서 36명(61.0%)의 교사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면담 및 상담’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자녀교육에 관련된 강의 및 세미나’로 13명(22.0%)의 교사들이 응답했으며, 이외에도 ‘학교수업 참관 및 직접수업’, ‘특기교육’등의 의견이 있었다. 부모교육 시행횟수는 1년에 1-2번 시행이 41.8%, 3-4번 시행이 20.9%로 나타났다. 기타는 37.2%였는데, 매일 시행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기독교교육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녀의 교육에 부모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면담 및 상담 외에 다양한 부모교육을 좀 더 자주 시행하여 학교와 부모가 협력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3) 부모교육의 중요성 및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교육의 형태와 참여정도

부모교육의 중요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27명(62.8%)의 교사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11명(25.6%)의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표 5-3> 부모교육의 중요성 및 부모교육의 형태와 참여정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중요성	유효 매우 아니다	1	2.3	2.3
	보통이다	4	9.3	11.6
	그렇다	11	25.6	37.2
	매우 그렇다	27	62.8	100.0
	합계	43	100.0	
부모교육 형태	유효 면담 및 상담	37	39.4	
	교육현장참여	7	7.4	
	부모교실	21	22.3	
	강의 및 세미나	28	29.8	
	기타	1	1.1	
	합계	94	100.0	
참여정도	유효 학교에 일임	8	18.6	18.6
	교육에만 참여	4	9.3	27.9
	운영에만 참여	14	32.6	60.5
	모두 참여	16	37.2	97.7
	기타	1	2.3	100.0
	합계	43	100.0	

대체적으로 88.4%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교육의 형태는 37명(39.4%)의 교사들이 '면담 및 상담과 같은 교사와의 직접적인 만남'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은 '자녀교육에 관한 강의 및 세미나'로 28명(29.8%)의 교사들이 응답했다.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 부모교실 운영'은 21명(22.3%)의 교사들이 응답했다. 이는 현재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기독교학교에 대한 부모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의 교육과 운영은 전적으로 교사와 학교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8명(18.6%)이고, '학교의

교육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4명(9.3%)이었다. ‘학교의 교육은 교사에게 일임하고, 운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14명(32.6%)이고, ‘학교의 교육과 운영 모두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16명(37.2%)이었다. 적극적인 부모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교사들이 37.2%라는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사들일지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은 교사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교육의 내용

<표 5-4>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교육의 내용

	자녀상담	기독교세계관	기독교교육	자아계발	기타
순위 1	18	11	6	7	1
2	8	10	13	5	1
3	11	9	9	5	
합계	37	30	28	17	2

부모교육 강의 및 세미나 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성경적 자녀상담’, ‘기독교교육’, ‘기독교 세계관 및 성경’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 자신의 자아계발’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급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자녀교육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 하는 부모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6. 교사재교육

(1) 교사재교육의 중요성 정도 및 재교육 희망 정도

<표 6-1> 교사재교육의 중요성 정도 및 재교육 희망 정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중요성	유효 보통이다	6	14.0	14.0
	그렇다	14	32.6	46.5
	매우 그렇다	23	53.5	100.0
	합계	43	100.0	
희망정도	유효 아니다	2	4.7	4.7
	보통이다	12	27.9	32.6
	그렇다	16	37.2	69.8
	매우 그렇다	13	30.2	100.0
	합계	43	100.0	

교사재교육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교사들(86.1%)이 ‘그렇다’라고 응답해 교사재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었고, 또한 교사재교육을 희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2) 교사재교육 프로그램 여부와 체계성 및 횟수

<표 6-2-1>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

	체계성				전체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프로그램 (네)	1	15	6	3	25
(아니오)					18
합계					43

<표 6-2-2>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의 횟수

	시행횟수					전체
	1번	2번	3번	4번	기타	
프로그램 (네)	6	9	1	1	8	25
(아니오)						18
합계						43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서 25명의 교사들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체계성에 있어서는 15명의 교사들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했다. 또한 시행횟수에 있어서는 1년에 대부분 1-2번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이 간헐적으로 운영되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아래 시행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따라서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3)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재교육의 형태 및 시기

<표 6-3>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재교육의 형태 및 시기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교사 재교육 형태	유효	30	39.0	39.0
	세미나 및 연수	3	3.9	42.9
	신학교강의청강	19	24.6	67.5
	현장견학	25	32.5	100.0
	합계	77	100.0	
교사 재교육 시기	유효	10	18.2	18.2
	여름방학	33	60.0	78.2
	겨울방학	2	3.6	81.8
	주말	4	7.3	89.1
	평일	6	10.9	100.0
	기타	55	100.0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재교육의 형태는 ‘세미나 및 연수’가 39.0%, ‘체계적 훈련’이 32.5%, ‘현장견학’이 24.7%, ‘신학교 강의청강’이 3.9%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세미나 및 연수를 가장 선호하며, 기독교교사 재교육의 체계적 훈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재교육의 시기는 겨울방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재교육의 내용

<표 6-4>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재교육의 내용

	기독교세계관	성경연구	성경적상담	교수학습방법
순위 1	19	7	9	6
2	9	6	8	20
3	10	5	17	9
합계	38	18	34	35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재교육의 내용은 기독교적인 교수-학습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교육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역시 실제 교육현장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 다음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재교육의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7. 기독교학교의 미래

(1) 기독교학교의 발전가능성

기독교학교의 발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14명(32.6%)의 교사들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22명(51.6%)의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이 기독교학교의 앞으로의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표 7-1> 기독교학교의 발전가능성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발전 가능성	유효 아니다	1	2.3	2.3
	보통이다	6	14.0	16.3
	그렇다	22	51.2	67.4
	매우 그렇다	14	32.6	100.0
	합계	43	100.0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기독교학교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기독교 학교의 발전을 위한 고려

<표 7-2> 기독교 학교의 발전을 위한 고려

		학교 설립	필요성 인식	교육과정 개발	교사 양성	조직 및 지원
순위	1	3	13	6	20	
	2	3	8	17	10	4
	3	4	11	13	6	6
	합계	10	32	36	36	10

기독교학교의 발전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을 살펴본 결과, 20명의 교사들이 기독교 교사 양성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양질의 교재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환경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기독교 교사는 기독교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기독교학교 교사들이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독교학교 발전의 장애요인

<표 7-3> 기독교학교 발전의 장애요인

유 형	내 용
연계성부족	기독교대학의 부족 교회의 무관심
인식문제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편견, 학부모의 인식부족 기독교교육의 필요성인식부족
기독교학교자체의문제	목표의 희석, 기독교 학교이념의 부재 사회와의 타협 열악한 보수와 근무 환경, 과중업무 설립자 또는 교장의 독단적 일처리 열악한 재정
대학입시제도	성공 지향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가치관
기독교사의부족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교사의 부족 기독교 교사 양성 기관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교육과정연구미흡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의 부족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학교 교육의 현황과 그 대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기독교학교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기독교학교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미션스쿨이 아닌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학교의 예배, 교육과정,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교육에서 핵심적 교과 가운데 하나인 예배와 관련된 질문에서 대부분의 기독교학교가 일주일에 예배를 1-2번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0%),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횟수 또한 일주일에 1-2번인 것으로 나타났다(72.1%). 설교는 외부강사, 교장선생님, 교목, 그리고 교사들이 번갈아가며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교본문은 설교자 임의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학교들이 예배를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학교에서의 예배는 학생들의 신앙과 삶을 이어주는 교량이며,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학문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배양하는 일종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에서의 예배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조직·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65.2%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성경과 각 교과목의 통합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39.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나아가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이 충분한 연구와 분석 없이 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각 교과목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질문에서도 입증되는데, 즉 79.1%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일반교재를 사용하면서 기독교적인 조명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사의 재량과 관계되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39.5%의 교사들만이 성경과 각 교과목의 통합 정도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결과를 볼 때,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그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교육과정은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그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셋째, 기독교학교에서의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기독교학교의 운영에 부모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32.6%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의 형태는 ‘자녀교육에 대한 면담 및 상담’(61.0%)과 ‘자녀교육에 관련된 강의 및 세미나’(22.0%)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기독교학교의 부모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모교육 또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기독교학교의 88.4%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했으나, 바람직한 참여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37.2%의 교사들만이 부모들이 학교의 교육과 운영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학교에 일임해야 한다거나 교육 혹은 운영에만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60%가 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1차적으로 있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이라고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곳이 학교이며 부모는 단지 협조하고 참여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쉬우나, 기독교교육에서 학교 교육은 가정의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자녀 양육의 확장된 측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재교육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86.1%의 교사들이 교사재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7.4%의 교사들이 교사재교육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독교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독교학교의 진정한 정체성은 교사의 학교관과 교육관이 얼마나 성경적이며 얼마나 신본주의적인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대학의 일반학과를 졸업한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은 기독교 세계관 및 기독교 교육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며,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교사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각 교과목의 교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86.1%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79.1%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일반교재를 사용하면서 기독교적인 조명을 하고 있고, 9.3%에 해당하는 교사들만이 기독교적 관점을 통합한 통합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통합된 교재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우며, 어떤 교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학자와 교과전문가, 그리고 기독교 교사의 협력 아래 교재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결론을 토대로 한국 기독교학교의 현황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학교의 전반적인 영역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다루었기 때문에 각 영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기독교학교 교사들의 기독교 세계관 확립정도, 예배의 문제, 교육과정,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 교사재교육 등 각각의 영역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의무로서 기독교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교회와 학부모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에서 차세대를 책임질 인재를 기독교학교를 통해 키울 수 있도록 기독교학교 설립에 대한 비전과 실시가 요구된다.

셋째, 바람직한 기독교학교의 모델이 필요하다. 많은 교사들이 교사재교육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현장의 참관 및 견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기독교학교에 대한 올바른 모델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기독교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관

만 갖춘 기독교학교가 아닌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기독교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독교 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교사훈련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사재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여섯째, 기독교 교육과정과 기독교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독교 교육학자와 기독교 교사들이 기독교 교육과정 및 기독교 교육 교재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기독교학교연구회(1999).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학교』,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김요셉 (2005),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기초한 교육함의 의미. 디지털 시대의 기독교 학교 및 홈스쿨링 교육,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 김인중 (1998), “기독교학교 운영의 가능성과 한계성”, 『기독교학교, 왜 필요한가?』, 총신대학교 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9(1), 55-71.
- 김형태 (1998), 『기독교교육의 기초』,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김희자 (1998), “기독교학교의 본질과 목적” 『기독교학교, 왜 필요한가?』, 총신대학교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9(1), 7-31.
-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1994),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기성출판부.
- 신서균 (1994), 『기독교교육의 기초』, 신서균 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오인탁 외 4인 (1996),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 오춘희 (2003),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기독교학교의 가능성과 그 전망”, 『기독교교육 정보』, 제 7집,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 오춘희 (2005),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교육적 과제: 기독교학교와 홈스쿨링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기독교 학교 및 홈스쿨링 교육』, 한국기독교 교육정보학회.
- 이승구 (1999), “기독교 학교의 정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서울, 예영 커

뮤니케이션

- 이정효 (1994), 『기독교교육개론』,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서울, 기성출판부.
- 임태규 (1999),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은준관 (1995),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정정숙 (2000), 『기독교교육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 정희영 (2000), 『기독교 유아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미라 (2004), “기독교교육의 삶과 삶-기독교학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과제”. 고강희천 교수 추모기념 논문집간행위원회 편, 서울, 한들출판사.
- Brummelen, H. V. (1996),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서울, IVP.
- De Jong, N. (1994), 『진리에 기초를 둔 교육』, 서울, 생명의 말씀사.
- Edlin, R. J. (2004), 『기독교교육의 기초』,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역, 서울, 그리스.
- Hayes E. L. (1994), 『기독교교육의 기초』, 신서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Holmes, A. F. (2000), 『기독교 세계관』,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 Knight, G. R. (1993). 『철학과 기독교교육』, 박영철 역, 서울, 침례신학대학 출판부.
- Peterson. G. A. (1994), 『기독교교육의 기초』, 신서균 역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Walsh, B. J. & J. R. Middleton, (1996), 『그리스도인의 비전』, 황영철 역, 서울, IVP.
- Wilhoit, J. (1993), 『현대 기독교 교육』, 신서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Wolters, A. M. (1992), 『창조 · 타락 · 구속』, 양성만 역, 서울, IVP.
- 국민일보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 대안학교의 정체성(2005, 7, 17)”, 서울,
조선일보 “붕어빵 교육가라...폭발하는 대안학교(2005, 8, 29)”, 서울.
- www.kfcs.or.kr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s and the educational situation of Christian schools in Korea

Hee-Young Jeoung* and Hee-Jung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rection of the Christian schools in Korea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educational situation of Christian schools in Korea. For th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hristian education were described and owing to analyze the educational situation of Christian schools, questionnaires relating to worship, curriculum of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parents education, Christian teachers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materials for Christian schooling were dealt with.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 firstly, worship is not organized systematically in Christian curriculum. Secondly, curriculum for Christian school is managed without full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irdly, teachers have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educational responsibility of parents. Lastly, there are high necessity for teachers to be trained as Christian teachers and to develop the materials for subjects.

3) Professor of Chongshin University

4) Doctor's course of Chongshin University

Key words : Worship, Curriculum of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parents education,
Christian teachers education, Development
of materials for sub